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5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음력 1월 19일 kwangju.co.kr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조 … “난 언제 맞나” 관심 고조

광주·전남 5817명 접종 …5일까지 1차 대상자 접종 마무리
지자체·의료기관에 백신접종 순서 문의 폭주 ‘뜨거운 관심’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와 의료기관 등에 백신접종 순서를 묻는 문의가 폭주하는 등 시·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2, 6면〉

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이날 0시 기준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5817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았다. 전국에서는 총 2만 1177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광주는 1차 접종 대상인 148개소 1만878명 중 50개소 3314명이 접종을 받아 30.5%의 접종률을 보였다.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이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503명이 접종을 받았다. AZ백신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만7767명 가운데 14% 수준이다. 전남도는 1일 하루 쉬고 2일 백신 접종을 재개해 이르면 5일까지 1차 대상자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선 8주 후인 4월 말부터 AZ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접종 후 발열 등 이상 반응(증상)은 광주 5건 그리고 전남 9건이 보고됐으나, 방역당국은 이들 이상 반응 모두가 정상적인 면역 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평가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AZ백신 접종과 함께 3일부터는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화이자 백신도 AZ백신과 마찬가지로 1, 2차에 걸쳐 2차례 접종한다. 접종 간격은 3주다. 화이자백신은 지난달 26일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으로 9T(트레이) 1만530회분이 도착했다. 화이자백신 1T는 195바이알(1170회분)이다. 조선대병원측은 전남과 제주 등 호남권역에 화이자백신을 보내기 위해 소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3일부터 5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백신 내원접종을 시작하고, 전남도 공공병원 등 일부 시설은 8일부터 20일까지 자체 접종을 진행한다. 전남지역 화이자 접종 대상자는 목포·강진·순천 등 3곳의 공공병원(의료원)과 화순전남대병원, 광양우리병원, 국립나주병원, 호남권생활치료센터(나주) 7개 병원 의료진 등 862명이다. 접종 장소는 호남권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과 도내 3곳의 공공의료원(목포·순천·강진)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민 70% 이상을 순차적으로 접종을 마무리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2분기까진 요양병원·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등이 접종을 마무리한다. 특히 2분기(4~6월)에는 당초 1분기에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3월 말까지 고령층의 AZ 백신의 유효성 관련 임상 자료를 추가 확인해 최종 접종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3분기(7~9월)부터는 일반 성인 전체가 포함되고, 접종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18~64세 성인이 접종을 받게 되며,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등 사회 필수 인력,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국내에 도입된 백신 대다수가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만큼, 4분기(10~12월)에는 2회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앞서 자신의 차례에 접종을 거부했다가 다시 접종을 받을 경우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미성년자 접종여부는 추가 임상 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시·도 방역 관계자는 “백신 물량 확보 규모 등에 따라 백신접종 계획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접종 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 물량 확대 등을 감안해 효과적인 접종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보훈요양원 고숙원장(58)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힘, ‘호남 동행’ 진정성 보여라”

‘아특법’ 국회 통과 때
제2지역구 배정의원들 반대·기권

광주·전남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무더기로 반대·기권에 나서면서 거대 야당의 ‘호남동행’이 ‘헛 구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에서는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를 통해 ‘호남동행’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찬성 168, 반대 75, 기권 7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쟁점이 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아특법 국회 통과 과정은 사실상 ‘야당의 반대의 시간’이었다 . 지난해 8월 13일 아특법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장조사를 했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두 고 세 차례나 회의가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재단 직원 고용 승계 문제를 특혜라며 반대하면서 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까지 회부돼 지난해 12월 23일 문체위에서 표결처리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무관심은 여전했고, 특히 ‘호남동행’ 의원들의 침묵이 이어졌다.

광주·전남에 제2지역구를 둔 31명의 호남동행 국민의힘 의원 중 무려 29명의 의원이 반대와 기권·불참으로 호남의 열망을 저버렸고, 그나마 광주에 제2지역구를 배정받은 장제원·하태경 의원 등 2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범위를 전북 호남동행 의원으로 확대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북지역 12명의 호남동행 의원 중 찬성은 유의동 의원 1명이었고, 11명의 의원은 반대와 기권·불참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호남동행 43명의 의원 중 찬성은 3명이었으며, 호남동행 의원이었다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인 전봉민 의원도 끝내 호남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지난해 ‘5·18 왜곡 처벌법’ 처리 과정에서도 이들 ‘호남동행’ 의원들의 협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지역 호남동행 의원인 장제원 의원·김용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5·18 왜곡 처벌법에 반대하고, 하태경 의원은 기권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또다른 지역 현안법안인 한전공대법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를 거론하면서 “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맞다”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각 대학에 많다. 그런 대학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등의 이유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유지
유흥시설 밤 10시 영업제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광주·전남은 오는 14일까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유지되고, 전국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치원·초·중·고 오늘 개학 “철저한 방역을” ▶6면
굿모닝 예향 - 문화로 피어나는 동명동 ▶18·19면
KIA 브룩스·멩덴의 마운드 특급 과외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